



쿠키뉴스 전국강원

고성 평화의 길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서 최우수 선정

강은혜 기사승인

내 환경 탐방로 개설 평화 분위기 조성 견인



강원 고성군 평화의 길 노선도 사진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 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고성군이 2020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고성군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지자체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의 추진 실적과 관계 기관 협력 등을 종합 심사했으며 최우수 기관 1개와 우수 기관 2개가 선정됐다

고성군의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냉전과 분단의 이념 대결 지역인 고성군을 평화의 길로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 지대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평화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이에 고성군 내 평화의 길의 환경친화적 탐방로를 개설해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개방했으며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세부 실행 과제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둔 군부대와의 합의 각서 체결을 비롯해 유관 기관 합동 상황 조치 훈련 안전 관리를 위한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역사 문화 생태 안보 자원과 연계해 탐방로와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남한 최초로 설치돼 등록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고성군 최동북단 감시초소 구간까지 도로 정비 등의 공사를 진행해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추가 개방할 예정이라며 보다 많은 관광객이 지구촌 평화의 상징지대이자 생태 환경의 보고인 고성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고성 평화의 길은 지난해 월 일반에 개방된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중단된 지난해 월
까지 총 만 명이 방문해 평화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